

“5·18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될 민주주의 실현”

‘5월 광주’ 직접 체험 위해 광주 온 日 배우 사케구치 아야나



25~28일 일본서 개최될 ‘푸르른 날에’ 낭독 준비하며 ‘5·18 민주화운동’ 알게 돼 2박3일 머무르며 사적지 답사 “광주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오월 광주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기 위해 일본의 한 배우가 광주를 찾았다. 사케구치 아야나(24)씨가 그 주인공. 사케구치씨는 오월 광주를 다룬 낭독회 공연을 앞두고 지난 9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기자가 그를 만난 건 10일 오전 10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였다. 김용철 오월지기와 김경미 일본어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사케구치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해외여행이 광주라며 웃었다. 5·18민주광장 추모탑 앞에 서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읽고, 본

수대 앞 시계탑에 서서는 오월지기의 설명을 듣는 등 진지한 표정으로 광주 역사의 현장을 느꼈다. 양림동에 머문 첫날에는 들불야학터와 시민아파트 등 5·18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둘째날인 10일에는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 5·18기록관을 방문했다. 사케구치씨는 배우를 꿈꾸며 2년간 배우 양성소에서 공부했다. 코로나로 제약이 적지 않았지만 와중에도 sf코미디 연극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일본 한일극장 교류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정경진 작가의 희곡 ‘푸르른 날에’ 낭독 무대에 선다. 목포 출신 정경진 작가가 5·18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는 연출가 후지와라 카나를 포함해 13명의 배우들이 함께한다. 후지와라 카나와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이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낭독회까지 참여하게 됐다. 사케구치씨는 광주에 방문하기 앞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하는 고민도 했다는 그는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그는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작품을 준비하며 “5·18은 한국의 역사에서 절대 잊혀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5·18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 이번 무대가 아니었다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나름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만약 내가 1980년 5월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할 용기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케구치씨는 앞서 광주에 다녀간 후지와라 연출가의 말을 떠올렸다. ‘광주에 다녀오기 전에 읽은 희곡과 다녀온 후에 읽은 희곡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이번 작품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5·18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하다 보니 “광주라는 도시가 지니는 상징과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했다. “텍스트로 희곡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땠습니까 그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보성향교 대성전 부지 매입 공적비 제막



보성향교(전교 백준선)는 10일 보성군 보성읍 향교 내 효호회관에서 유림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전 부지 매입에 따른 공적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보성향교는 그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며 관리해 온 대성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왔다. <보성향교 제공>

광주조달청, 전남교육청에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가운데)은 9일 ‘2022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도교육청을 찾아 상패와 유공 직원(김인숙 주무관) 표창장을 전수했다. <광주조달청 제공>

조선대병원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장관상

선경훈 교수, 사업 정착 기여로 국립중앙의료원장상 수상도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이 최근 ‘2022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2년 우수 의료지도 의사에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선경훈 교수가 심정지 환자 생존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의료지도 현장소생술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함께 수상했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119구급대원과 의료기관 의사가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활용해 이송과정에서 병원 응급실 수준의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선표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조선대병원은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광주소방안전본부와 긴밀히 협



선경훈(왼쪽)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을 수상했다.

력해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강성곤 교수 ‘한국도예진흥원’ 초대 고문 위촉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성곤(사진) 교수가 한국 도예계의 진흥을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이 모여 결성된 ‘한국도예진흥원’의 초대 고문에 위촉됐다. 한국도예진흥원(회장 이지훈)은 최근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학계, 산업계, 도예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감사의 밤’ 행사를 갖고,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소개한 뒤 한국 도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 호남대학교 강성곤 교수는 김병을 단국대학교 음악 예술대학 도예과 교수와 함께 한국도예진흥원 고문으로 위촉됐다. 강성곤 교수는 “한국 전통 도예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한국도예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교류 강화에 힘을 보태 한국도예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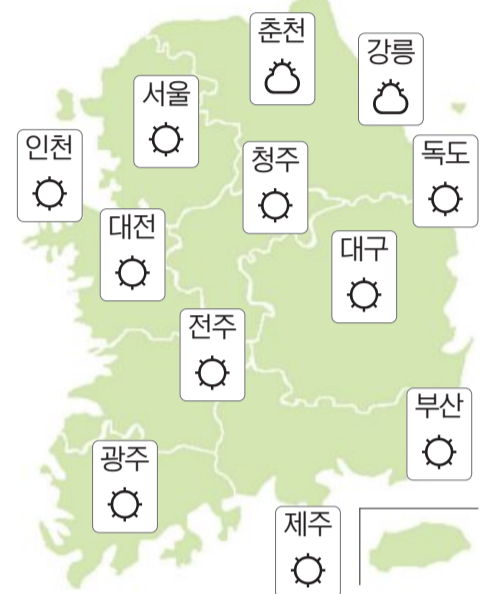
해돋이	07:41	달뜨기	21:32
해질	17:39	달짐	10:25

1월에 찾아온 봄

낮 최고기온이 10~15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광주	맑음	0/13	보성	맑음	-3/13
목포	맑음	0/11	순천	맑음	-1/14
여수	맑음	3/12	영광	맑음	-3/11
나주	맑음	-3/13	진도	맑음	0/12
완도	맑음	2/13	전주	맑음	-1/11
구례	맑음	-2/13	군산	맑음	-4/9
강진	맑음	-1/15	남원	맑음	-3/11
해남	맑음	-3/14	축산도	맑음	5/10
장성	맑음	-2/13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45	22:23	04:19	17:01
여수	05:17	17:48	11:47	23:47

◇생활지수

감기	천식	미세먼지
경고	위험	보통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2/16	12/15	9/12
15(일)	16(월)	17(화)
5/6	-1/3	-4/3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14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입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구재길(세종요양병원 이사장)·장하영씨 아들 영민(의사)군, 이병철(자영업)·황복희씨 딸 예인(교사)양=14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엘루체홀
- ▲오필남(365인력마켓 대표)·장형임씨 아들 지우군, 박철·박인순씨 딸 수지양=14일(토)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 ▲최영호(전 국민은행지점장)·문은주씨 아들 현웅군, 변인희·이희영씨 딸 연주양=14일(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라드지디 강남 더 그레이스 켈리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

- 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자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

정서지원·문화체험·식재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 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